

『전자기록 평가론』 (김명훈 저, 신진리탐구, 2009)

곽 정*

전자기록은 기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키비스트에게도 쉽지 않은 대상이다. 간단한 이메일에서부터 업무상 작성하는 보고서나 데이터베이스 등 일상적으로 전자 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너무 익숙하지만 그 정체를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리고 얼마동안 남겨두어야 할지 명확한 해답을 알고 있는 이는 거의 없다. 글을 읽고 실제 기록을 다루다 보면 이해가 갔던 종이기록과는 달리 확실히 전자기록 환경은 아키비스트가 직면하게 되는 또 다른 도전임에 틀림이 없는 듯하다.

이제껏 전자기록에 관한 국내 연구는 관리방법, 보존기술, 표준, 메타데이터 등 개별적인 주제를 다루는 수준이었다. 이번에 출간된 『전자기록 평가론』은 지금까지 제기된 전자기록에 대한 수많은 이슈들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제기되었으며, 각 이슈는 서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다른 견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논의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지 조목조목

* 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설명해 주고 있는 친절한 책이다. 특히 방대한 양의 참고목록을 볼 때 저자의 노력에 감탄하게 되는데, 국내외 전자기록 관련 연구 동향이 잘 정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논문이 꼼꼼히 주석으로 달려있어서 전자기록의 어떠한 분야를 다루는 연구자라도 참고가 될만하다.

저자는 기존의 연구가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 평가의 역할을 논하기보다 전자기록의 기본 속성에 기반한 원론적인 모형제시에 그쳐 중요기록물의 선별 논리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전자기록을 체계적으로 획득·유지하는 관리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의 의미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내용상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전자기록 평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할 배경적인 논리들을 설명하고, 두 번째에서는 전자기록 평가의 의미, 평가 방식, 평가 체제에 대해 기존 연구 성과와 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마지막 영역에서는 앞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평가제도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평가 논의의 기반 연구로서 두개 장을 할애하고 있다. 1장은 종이기록 환경에서의 기록물 평가 원리와 방식이 전자기록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자기록 속성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상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규명해 내고 있다. 특히 전자기록의 평가는 그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맥락을 중시하는 생산 환경에 대한 평가, 현용적 가치의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2장에서는 증거의 관점과 컨티뉴엄 이론을 통해 업무와 기록, 기록관리 간

의 친연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업무 친화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가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임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전자기록 평가의 기본 논리 및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제 기록관리 표준인 ISO15489, 국제 연구사업인 InterPARES 프로젝트, 컨티뉴엄 이론과 영구보존 대상 평가 전략으로서 영국·캐나다·호주·독일의 사례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저자는 3장에서 ISO15489의 기록의 정의, 기록관리의 목적, 분류, 기록의 품질기준, 기록관리 프로세스 등에서 업무친화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ISO15489의 평가 논리와 준거를 도출하고 있다. ISO15489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을 획득하고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 결정하는 준거로 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컨플라이언스, 업무적 필요, 설명책임성 요건, 위험평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ISO15489가 추구하는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평가가 연결된다고 분석하고, ISO15489에 나타난 평가의 함의는 생산맥락의 연동 속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품질을 지닌 완전무결한 상태로 선별하는 것임을 입증하였다.

4장에서는 가치 평가와 진본성 평가로 대별되는 InterPARES 프로젝트의 선별기능 관리·평가·평가된 기록의 감시·처리의 네 단계 평가체제를 분석하였다. 필자는 InterPARES의 계속적 가치의 평가와 진본성 평가가 법적·업무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선별된 전자기록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록물 자체가 아닌 기능에 근거한 가치분석을 권고하고 있는 점에서 ISO15489의 평가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컨티뉴엄 이론을 통하여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능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논리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수행 방식을 기록관리시스템 설계 및 수행 방법론인

DIRS의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현용적 가치가 강화되는 기능평가에 머물지 않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통합적인 평가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장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구보존 대상의 선별 정책으로서 호주의 범정부 기능분석, 영국의 평가정책과 수집정책, 독일의 다기관 협력 평가전략, 캐나다의 거시평가 전략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각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한시기록 평가와 별도로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영구보존 대상의 선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전자기록 환경하에서는 현용적 가치 평가와 영구보존기록의 평가라는 이원적 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공공기록 평가체계를 진단하고 전자기록 평가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6장에서는 '07년 기록관리법 개정 이전 적용되었던 기록물분류기준표와 법 개정 후의 기록관리기준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의 평가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각 기관 별로 업무 분석을 강화하고, 둘째 현용 가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며, 셋째 정보적 측면에서의 기록의 가치 선별을 강화하고, 넷째 국가적 차원의 평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7장에서는 InterPARES의 평가체제 모형에 ISO15489의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전자기록의 가치평가와 속성평가가 통합된 평가 절차 모형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전자기록 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간에 기록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 기록관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아마도 현대 기록관리 역사가 짧아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누적된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종이기록 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전자기록이라는 낯선 대상을 고민하다 보니 근본적인 논리의 이해 없이 표피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느낌이 든다. 앞서 살펴본 『전자기록 평가론』은 이러한 시점에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책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연구사적 의미는 전자기록 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이원적 국가 기록평가 체제는 평가와는 별개로 논의되어 왔던 현용 가치를 평가의 영역으로 포괄함으로써 일선기관의 기록관리 목적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목표를 적절히 조화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원적 평가체제가 그간의 평가논리의 단순 합집합 논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용가치 평가와 영구기록 선별 평가 간의 평가 상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좀더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전자기록 환경으로 인해 야기된다기 보다 기록관리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가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이원적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 책의 의의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대상 평가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국가적 견지에서 중요 기록을 선별하는 정책이 부재하고 보존기간 책정 기준에 장기 보존 가치를 포함시키는 수준이어서 당대 사회상을 남기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시점에서 현재 남겨진 영구 기록이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으며 범정부 기능평가든

다기관 협력 평가 전략이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볼 때, 저자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시의적절하다. 아직 저자의 구상이 민간 전자기록 수집체제 수립 정도에 그쳐 아쉬운 점은 있으나 앞으로 이 분야 연구에 있어 단서로서의 역할로는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의 정체성 정립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전자기록의 기술적 속성이나 증거적 개념에 한정되어 왔던 논의의 수준을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모되어 왔던 기록관리의 의미와 역할의 고찰로부터 그 이상의 정체성으로 확대 해석하고자 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 기반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론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